

현대중국어에서 언어환경에 의한 의미의 생략과 보충기능에 대한 분석

라 장 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국어는 실지로 써먹을수 있게 배워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실지로 써먹을수 있게 배워주자면 중국어의 언어표현에서 해당 언어환경에 의하여 생략되거나 보충되는 언어환경적의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의미의 생략과 보충은 언어교제과정에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의미의 생략은 간단명료하면서도 세련된 언어로 교제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의미의 보충은 표현자가 생략한 내용을 접수자가 이해할 때 있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표현자가 언어표현에서 일정한 내용을 생략하였다면 접수자는 그것을 이해할 때 반드시 보충하여야만 정확하면서도 명백한 의미를 얻을수 있다.

해당 언어환경의 제약밑에 흔히 보충되는것은 개별적인 어휘뿐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문장의 전체 의미에 대한 생략된 의미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생략이든 보충이든 다 반드시 공통적인 언어환경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의미의 생략과 보충은 언어환경의 특수한 기능이라고 말할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현대중국어에서 언어환경에 의한 의미생략기능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해당 언어환경에서 표현자는 언어표현에서의 중복을 피하거나 쌍방의 심리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접수자가 언어환경에 근거하여 보충할수 있는 정보들을 생략할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언어환경의 생략기능이다. 의미생략에는 두가지 경우

가 있다.

첫째로, 표현을 세련되게 하기 위하여 문맥이 제공하는 이미 알고있는 정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언어교제는 동태적인 과정으로서 흔히 일련의 이야기로 구성된 말고리를 형성한다. 사람들은 표현에서의 간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흔히 일부 내용들을 생략하여 반복을 피하고 새로운 정보를 두드러지게 하여 말고리가 서로 밀접히 련관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례: 周朴园: 你不知道这间房子底下人不准随便进来么?

鲁侍萍: 不知道, 老爷.

周朴园: 你是新来的下人?

鲁侍萍: 不是的, 我找我女儿来的.

(주박원: 하인들은 이 방에 함부로 들어올수 없다는것을 모르나?)

로시평: 몰랐습니다, 주인님.

주박원: 자네는 새로 들어온 하인인가?

로시평: 아닙니다. 저는 딸을 찾아왔습니다.)

우의 실례에서 주박원과 로시평의 대화는 말고리를 형성하고있다. 로시평의 《不知道. (몰랐습니다.))》라는 대답은 앞문맥의 물음문에 근거하여 《我(나)》와 《这间房子底下人不准随便进来(하인들은 이 방에 함부로 들어올수 없다)》는 정보를 생략하였다. 그리고 《不是的. (아닙니다.))》라는 대답도 앞문맥에 근거하여 《我(나)》와 《新来的下人(새로 온 하인)》이라는 내용을 생략하였다. 만일 문맥이 제공하는 문맥적의미가 없다면 이러한 생략현상이 있을수 없다.

둘째로, 해당 언어환경이 제공하는 이미 알고있는 정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언어환경이 제공하는 이미 알고있는 정보는 상식적정보와 련관정보로 구분할수 있다.

상식적정보라는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축적되어있는 일상적인 여러가지 경험과 지식을 말한다. 일정한 사물이나 정황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상식적정보에 근거하여 자연히 그와 련관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련상이 생겨난다. 이것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새로운 정보를 교류하고 리해하는 기초로 된다. 언어도 하나의 정보로서 례외로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익숙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는 이미 사람들의 머리속에 들어가있다. 교제과정에 시간과 로력을 절약하려는 원칙이 작용하여 사람들은 자연히 상식적정보를 담은 언어표현을 생략하게 되며 접수자 역시 상식적정보에 근거하여 생략된 내용에 대하여 보충하고 리해하게 된다.

실례로 철도역의 차표 찍는 홈에서 안내원이 손님에게 《票!(차표!)》라고만 말하는것도 해당 언어환경의 영향을 받은 생략된 언어표현이다. 이러한 언어환경에서 안내원은 《请把票拿出来,我要检票。(차표를 찍겠으니 당신의 차표를 꺼내십시오.)》라고 웅근문장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

련관정보에는 다방면적인것으로서 교제장소, 교제자, 교제내용 등이 포함될수 있으며 또 교제자의 얼굴표정, 몸자세, 손짓 등이 포함될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의 도움으로 하여 일부 정보들이 생략되어도 교제쌍방은 서로 리해하게 된다.

실례로 리동무와 장동무가 다 김동무의 형에 대하여 일정하게 알고있지만 장동무는 김동무의 형의 얼굴을 모르는 경우를 보자. 리동무가 장동무에게 《这位就是金同学的哥哥。(이분이 바로 김동무의 형입니다.)》라고 소개하였을 때 장동무는 자연적으로 자기가 알고있는 련관정보에 근거하여 김동무의 형에 대하여 리해하게 되며 그를 비록 처음 만나지만 이미 그에 대해

잘 알고있으므로 구면친구와 같은 친절한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 이것은 바로 언어환경이 제공한 련관정보가 보충적인 작용을 한 결과라고 볼수 있다.

다음으로 현대중국어에서 언어환경에 의한 의미보충기능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보충기능은 접수자가 언어환경에 근거하여 표현자가 생략한 정보내용을 보충하는것으로 표현될뿐아니라 일정한 언어환경의 도움으로 언어외적의미들을 첨가하고 보충하는것으로 나타난다.

언어환경에 의한 의미보충기능은 주로 두가지 측면 즉 개념적의미에 대한 보충과 언어외적의미에 대한 보충에서 표현된다.

우선 개념적의미에 대한 보충이 있다.

개념적의미는 말자체가 가지고있는 기본의미를 말한다. 주로 지시적의미, 문맥적의미 등이 있다. 실례로 《他开车去了。(그는 차를 몰고 갔다.)》라는 표현에서 《他(그)》가 누구를 가리키며 왜 차를 몰고 갔는지, 차를 몰고 사람을 바래우려고 갔는지 아니면 손님을 마중하러 갔는지 리해하기 힘들다. 오직 구체적인 시간, 장소, 정황 등 언어환경속에서만 정확한 의미를 리해할수 있다.

접수자는 표현자가 생략한 정보내용들을 언어환경에 근거하여 리해하고 보충해낸다.

례:甲:你的肉多少钱一斤?

乙:六块五。

(갑: 당신의 고기는 한근에 얼마입니까?
을: 6원 50전.)

우의 실례에서 시장이라는 구체적인 언어환경이 있기때문에 을은 갑의 물음문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충하여 대답을 하였던 것이다. 갑이 제기한 물음문의 의미는 《你卖的肉多少钱一斤?(당신이 파는 고기는 한근에 얼마입니까?)》이다. 손님이 고기를 사려는 의향으로 값을 물어보았기때문에 을은 친절하면서도 생략된 문장 《六块五。

(6원 50전.)》라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의 완전한 의미는 《我卖的肉六块五一斤。(내가 파는 고기는 한근에 6원 50전입니다.)》이다. 언어교제가 이루어지는 당시의 언어 환경에서 생략된 을의 대답을 듣고 갑도 물론 이 말을 이해하였다.

또한 언어외적의미에 대한 보충이 있다.

언어환경적의미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동시에 새로운 의미내용 혹은 새로운 색채가 첨가되어 표현된다. 이때 첨가되는 의미는 개념적의미와 호상 일치될뿐 아니라 언어환경이 부여한 립시적의미도 가지게 된다. 일정한 언어환경속에서 얻어지는 언어외적의미는 매우 풍부하고 다양하며 여기에는 감정적뜻빛갈, 개인의 주관적인 련상적의미, 암시적의미 등이 있다.

언어외적의미는 언어표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해당한 언어환경에 의하여 언어표현에 첨가되는 의미이다. 일부 언어정황에서 표현자는 여러가지 요소의 제약을 받아 바르게 말하여야 할것을 반대로 말하기도 하고 직선적으로 말하여야 할것을 에둘러 말하기도 하면서 의식적으로 채 말하지 않은 의미를 언어외적의미로 남겨놓아 접수자가 해당한 언어환경을 통하여 그것을 이해하거나 보충하게 한다.

례: 前任市长由上海调任国务院副总理后不久,有位记者采访上海市新任市长。记者问:“前任市长同志到国务院工作后,是说北京话还是说上海话?”

新任市长答:“他当然说北京话,不过前任市长同志也听得懂上海话。”

(전임시장이 상해에서 국무원 부총리로 조동된 후 어느 한 기자가 상해시 신임시장을 취재하였다.

기자의 물음: 《전임시장동지는 국무

원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베이징말을 합니까 아니면 상해말을 합니까?》

신임시장의 대답: 《그는 물론 베이징말을 합니다. 그러나 전임시장동지는 상해말도 알아듣습니다.》)

기자와 신임시장의 대화를 보여주는 위의 실례내용자체는 베이징말과 상해말에 대한 문제이다. 만일 이 측면에서만 두사람의 말을 이해하면 옳바른 이해로 되지 못한다. 사실상 그들의 대화는 언어외적의미를 가지고있다. 기자가 물어보려고 한것은 전임시장이 상해에서 베이징으로 조동되어간 후 국가적인 일만 관심할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상해의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에 관심을 돌릴것인가 하는것이다. 이것은 당시 상해의 각계층이 다 관심하는 문제로서 기자는 바로 이에 대해 알고싶었던것이다. 신임시장은 언어환경에 근거하여 기자의 물음에 담겨져있는 언어외적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답도 언어외적의미를 담아 매우 묘하게 하였다. 신임시장의 대답에 담겨져있는 언어외적의미는 전임시장이 부총리로서 물론 우선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에 관심을 돌리면서도 상해의 형편에 대해 잘 알고있으므로 상해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을 돌릴것이라는것이다. 여기서 언어환경은 《北京话(베이징말)》, 《上海话(상해말)》로 하여금 특수한 언어외적의미를 낳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언어외적의미에 대한 언어환경의 보충적기능이다.

이처럼 해당 언어환경을 리용하여 표현자는 일부 정보를 생략하게 되며 접수자는 생략된 정보를 보충하여 접수한다.

우리는 언어교제에서 필수적으로 있게 되는 의미의 생략과 보충기능을 비롯한 언어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아가야 할것이다.